

“現代文化와 大學教育 그리고 人文學”

崔 鐵 秉*

현대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학교육일반, 특히 인문교육의 위기의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학’과 ‘문화’사이 즉, 과학적 세계 해석과 일상적 삶의 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그릇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학이 더욱더 과학의 요새로 인지되면 될수록 전통적으로 일상적 시각에서 경험되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성찰하던 인문학(Geisteswissenschaften)¹⁾의 위치는 그만큼 왜소해지고 그 중요성 또한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는 현대 인문학의 일반적 태도는 전문주의와 방법론적 엄격성의 추구인데 이는 인문학 자체는 물론 대학교육 일반에도 불행한 결과를 야기 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일반적인 인본주의 교육의 중요성에 기반 하여 다루어져 왔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특정의 ‘전공’ 주제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역사 일반과 미적, 윤리적, 교육적 혹은 사회-정치적 영역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지식을 향유하는 ‘지성인’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삶의 양식이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 같은 인문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그리고 이해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물론 현대에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 고전’ 목록의 나열은 공허한 메아리로 반복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이 같이 불행한 상황에 대처하는 인문학은 그들의 작업을 더욱더 심각하고 철저한 ‘과학성’의 반열 위에 위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과학과 비교할 때 그것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필자의 이해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문학의 전문화와 과학화가 아니라, 대학의 안과 밖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하는 폭넓은 문화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로부터 기대되는 호의나 더 많은 연구비 지원, 혹은 전체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요성은 오히려 인문학의 사활에 관계된다.

*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철학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아시아-태평양 교육발전 연구단 연구원
1) 인문학은 대개 언어와 역사, 문화 등을 다루는 영역과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 같은 행동 과학 혹은 사회과학으로 대별된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역은 모든 인문학에 관련된다는 내용이겠으나 본문에서는 특히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 영역을 다루는 학문과 교육(Geisteswissenschaften)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본문에서 자연과학, 실증과학 혹은 정밀과학 등의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실재하는 일상문화와의 대화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인문학(Geisteswissenschaften)은 자신의 기원이며 지속적인 영감의 고향인 문화정신(Geist)으로부터의 단절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증과학자들을 위시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인문과학은 그 과학성에 있어서 절망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무슨 문제를 다루어야 할는지, 문제 해결-모델은 어떠한 것이며, 작업은 어떻게 분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그들 사이의 방법론적인 갑론을박은 어떤 단계 이상으로의 발전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행해진 많은 연구들은 실재하는 삶의 세계에 기반한 반성적 논의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외래적 텍스트와 이론에 끼워 맞추어져 왔다. 이 같은 현상은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비판적 혼란'의 결핍 때문에 양산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적 유사성이 엿보이는 언어학 같은 영역에서조차도 방법론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문학의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매우 '전문적'인 주제임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특정의 이론적 틀거리와 엄격한 방법론 구축을 시도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의 작업으로부터 가치판단과 모든 교학적 요소들을 걸러내어 어떤 수준의 객관성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학연구는 높은 수준의 문학작품(literature)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아니라 텍스트(text)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 대체된다.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통속소설이나 일간지의 잡문까지도 다룰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개발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의미나 가치와 같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실존적 주제들은 연구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당한 내용으로 제거된다. 실증과학의 경우와 같이, 이들의 경우에도 더욱 심화되는 전문화는 그들 주제의 특수화와 파편화로 이어진다. 이 같이 심화되는 전문화과정과 연관된 소위 '투명화 내지 명료화의 장점' 역시 예시된다: 즉, 각 연구영역 참여에 필요한 '혼련' 내용과 혼련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신입회원 자질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늘날의 추세가 얼마나 많은 시류적 타당성과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현대의 인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극단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실증과학의 경우 주제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필연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까지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의 경우, 적어도 일반적인 태도로서, 그것은 파산을 예고할 뿐이다.²⁾

2) 이 같은 시도들은 예외적으로 새로운 학문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필자는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도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인지과학은 이 같은 경우에 속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즉, 철학 내의 특수주체로부터 분기하여 진정한 개별과학으로의 독립이 그것이다. 심리학 내에서도 같은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인지과학이 철학을 대체한다거나 '민속'심리학의 총체적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화와 전문화라는 현대의 일반적 추세가 어째서 특별히 인문학의 존속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유는 이 같은 학문과 실재하는 세계 내에서 인간들이 살아내고 있는 실존적 의문이나 문제들간에 맺어져있는 본질적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들이 살아내는 세계는 과학이나 기술의 세계가 아니라 현상학자들이 ‘삶의 세계 (Lebens-Welt)’라고 부르는 의미와 가치로 물들여진 시간과 공간이다. 삶의 세계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순수과학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일상의 생활세계인 것이다. 과학이 우리에게 인간을 포함한 자연사물들의 내적 운동 과정과 그 구조들을 아무리 많이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과학적 사실들이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관하여 끝없이 대화하는 ‘의미와 가치들’을 대치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들을 인격체로 바라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감정이나 평가를 유지하는 한, 그 어떤 종류의 의문이나 소망 그리고 관심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엄밀히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고유한 양식의 성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일상인들의 마음속을 점유하고 있는 문제들은 자신과 타인들, 자신의 과거, 삶의 의미, 무엇을 할 것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이해들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실제로 삶의 세계 속에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기본적인 이해조차 가능하지 못하다. 물론 과학-기술적 발전들이 삶의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가적이며 변형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가적인 문제들도 애초에 원형적인 삶의 세계 내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간복제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은 발전하는 의학기술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사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우리가 일상적 삶의 세계에서 향유하거나 절망하는 인간에 대한 ‘비-과학적’ 이해나 인간출생에 관한 ‘비-과학적’ 태도와 분리하여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인문학은 ‘삶의 세계’에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통찰과 이해 그리고 감수성 등과의 모태적 유대 관계를 자를 수도 없고 잘라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전통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문학자들의 언어는 인간들의 삶의 세계에서 구성되는 의미나 가치들의 전통과 단절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공허한 기호의 무덤으로 전락한다. 여기서 우리는 진퇴양난 속의 현대 인문학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문학은 일상인들의 실제 생활 속의 문제나 의문 혹은 관심들로부터의 단절을 통하여 저급하고 의심스러운 그 어떤 종류의 과학적 지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그것은 대학가의 전문가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방언’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일반문화와 연계해서 볼 때 대학 내에서의 그들의 존재가치는 미미하기만 하다: 그들의 작업은 실증과학의 객관성이나 심각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관념이나 주

관적 기호간의 갑론을박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반문화와 대학 내에서 인문학의 진정한 위상은 사실 그러한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현대문화와 대학교육 내에서 인문학의 위상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삶의 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찰의 양식을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은 인간존재 양식의 고유한 특징이다: 시나 문학 또는 담론, 수다, 잡담, 이야기와 노래와 같은 양식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과학’적 이해와 경험의 양식들도 그러한 종류이다.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인문학도 지혜의 탐구를 의미하는 철학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현대문화와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양의 ‘근대과학’이 새롭게 구축/발전되면서 이 같은 삶의 양식들간의 위상과 소통의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대단히 길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짧게 줄여보자면, 과학적 지식과 삶의 세계를 성찰하는 다른 양식들, 즉 세계와 사물에 관한 과학적 이야기 방식과 인간-비인간,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질서와 혼돈, 미와 추, 선과 악, 기쁨과 슬픔 등과 같이 삶의 세계 범주 내에 뿌리하고 있는 이야기 방식이 급격히 그리고 선명하게 분리되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삶의 지혜간에 커다란 간극이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철학은 이전의 모든 과학 위에 군림하던 여왕의 위치에서 인문학의 일개 분과영역으로 좌천되었다.

인문학(Geisteswissenschaften)은 ‘비-과학적’ 형식의 삶의 양식들과 그에 내재하는 지혜 혹은 모든 사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통찰, 올바른 삶에로의 동기부여라는 의미에서의 삶과의 연계 속에서 고유한 학문(Wissenschaften)적 위상을 견지하여 왔다. 현대의 인문학이 아무리 ‘과학화’의 노력을 경주한다하더라도 삶의 세계 내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문제와 범주 그리고 그들간의 구분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진정한 과학’이고자 하는 염원은 실증과학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생활세계와의 불가치적 결별을 통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발전의 고유한 성취물로서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인문학과 같은 이해와 경험양식의 원초적 기원으로서의, 삶의 세계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성찰양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와의 비-과학적인 만남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미학이나 문학은 예술과 문학작품에 대한 사랑의 연장이며, 역사연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과거에 의해 지지되고 구축된다는 실존적 삶의 양식에 근거한다. 또한 과거나 외국 문화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우리들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타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비-과학적 호기심과 관심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인문학은 그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같은 그들의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의미로움, 특별함, 이상함, 기쁨, 미움 등에 관한 성찰적 심화, 확장, 명료화 등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구축될 수 있다.

여기에 인문학과 자연과학과의 진정한 차이가 놓여있다. 자연과학은 필연적으로 생활 세계 속의 의미나 가치로부터의 탈출 혹은 해방을 탐구의 목적으로 한다.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의 지각이나 사고는 살아있는 의미들의 표면을 살아가는 반면, 실증 과학적 사유는 비트겐슈타인이 암반의 하부라고 부르는 의미의 기저 층을 탐색한다. 실증과학의 타당성은 사물이나 개인에게 살아있는 의미에 대한 성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믿을 만한 정보와 설명기계의 공급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는 다르게, 인문학의 타당성은 생활세계 속의 의미나 가치들에 대한 심화나 명료화를 통한 교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종류의 성찰능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과학적 측면’은 이 같은 성찰의 주요 목적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 요소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의 역할, 객관성과 주관성의 대비, 사실과 가치의 관계, 이론과 실천 혹은 사고와 느낌 등과 같은 요소들과 연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실증과학에서, 이론적 모델은 사물들의 구조와 운동에 관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통찰에 이르도록 기여한다. 이 같은 통찰은 과학적 탐구의 목적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일상언어가 지시하는 대상물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와는 다르게 인문학에서의 이론적 요소는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소설이나 시, 역사적 변천, 인간관계 등과 같은 일차적인 구체적 의미 구조에 대한 성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에서는 ‘이론적 모델’의 발전과 이론화 이전의 현상적 이해 사이에 미묘한 조화가 성립/유지되어야 한다. 헤르쯔(Clifford Geertz)는 이것을 ‘원격-경험(experience-distant)’과 ‘근사-경험(experience-near)’적 개념간의 긴장적 조화라고 부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될 수 있는 한 ‘근사-경험’적 개념을 과학적 통찰의 명제로 대치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원격-경험’적 개념의 중요성은 언제나 고유한 ‘근사-경험’적 개념들간의 결속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의 도출에 있는 것이다. 이론적 요소가 구체적 경험 위에 균립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학에서의 이 같은 사태를 우리는 과도한 사변이라고 부른다.

이론적 요소에 관한 상기와 같은 차별성은 인문학에서의 ‘사실’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서의 사실에 대한 관심은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이론적 통찰에 관한 독자적 실험이나 실질 영역에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역할에 기인하지 않는다. 역사나 문학에서의 사실의 중요성은 문제에 고유한 내면적 관심으로부터만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과거에 관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은 보다 효과적인 적용이나 통제의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맛볼 수 있는 아련한 기쁨과 연관되어진다.

또 다른 차이는 학문과 실용적/기술적 중재사이의 관계에 놓여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인문학에서의 어떤 이론적 발전들(예를 들어, 심리학이나 사회 인류학 혹은 교육학 등)은 과학에 기초한 기술적 통제라는 실용적 이상에 의해 자극되어왔고 또한 현재에도 열광적으로 고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인문학은 물론이거니와 인문 사회과학의 총체적 목적 자체라고 보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문학이나 역사학이 탐구하는 요체는 무엇일 수 있는가? 이곳에서 우리는 사물에 관한 보다 확고한 지배나 통제를 의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세계 속에서 매혹과 경이로 경험되는 현상들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노력 속에서 비트겐슈타인이 “eine übersichtliche Darstellung” 즉, 경험되는 현상들이 보다 새롭고 깊은 의미로서 잉태되고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탐구의 목적은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획득을 통한 강력한 통제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더욱 깊고 넓은 이해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인문학은 이 같은 질문과 관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의 연구와 탐구는 절대로 ‘순수 중립적’이거나 ‘순수 객관적’일 수 없다: 사실들은 가치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지혜와 나누어 생각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문학 작품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왜곡된 자기-부정적 결과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엄밀히 객관적’인 연구들은 모든 평가와 의미적 요소들을 배제시킨 결과,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같이 흥미 있거나 동시에 흥미 없는 주제들로 일반화되고 만다. 표절되거나 가치 없는 작품이나 학술논문들을 동일하게 ‘엄밀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특정의 이론에 근거하여 텍스트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작품 활동이라기보다는 텍스트-산업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리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또는 지역 문화적 의미와 가치의 소멸은 과학적 탐구작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그들의 활동은 실존적 뿌리를 상실한 것으로서, 본질적 중요성이나 타당성 없는 단순한 이론적 조작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을 현대 역사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엄밀히 객관적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모든 의미 평가적 요소들을 제거시켜 왔다. 그러나, 역사를 구성하는, 특기할만 하거나 적절하거나를 구별 짓는 개별적이며 우연적인 과거적 현상 요소 자체에는 이미 가치와 의미평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의 요지는 역사학이 역사적 임의성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개별성과 우연성에 보다 깊은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의 이해와 연구에서 작품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 작품에 대한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물리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한 작품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객관성 확보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가치 중립적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필연적으로 주관적 편견으로의 나락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과학적 객관성의 지위를 얻지 못한 학문은 모두 상대적 주관성의 근거 없는 아우성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신화로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즉, 언제나 가치 중립적 시각만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가치평가 문제에 있어서 비-주관적 판단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나 그러하다. 훌륭한 음악과 저질의 음악, 진정한 친구와 음흉한 모리배, 흥미로운 문학작품과 통속소설, 잘 교육받은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을 끝임 없이 비-주관적으로 비교 판단하고 분리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가치 중립적 관점’을 가정할 때, 이 같은 판단과 평가는 근거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관적 취향의 문제로 취급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기대되는 문제와 의문에 관한 절대적인 해답을 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 같은 해답은 오직 ‘가치 중립적’ 객관성 위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근대 신화적 집착은, 우리의 일상적 시각 전체를 주관적 취향의 문제로 혹은 무지의 소치로 매도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인문학자들은 개인과 공동체간의 삶의 세계 구성에 필요한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내 혹은 선생이나 부모에 대한 믿음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합당한 대화(reasonable discussion)’의 근간과 맥락의 파괴에 자기 기만적으로 일조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대화’의 과정과 교육이 아무리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양식의 근원으로서 그 존재와 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본문의 전개 속에서 현대 인문학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질문은, 인문학이 실증과학과 같은 종류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간의 관념이나 공동체적 주관성의 차이로 치부되어야만 하는가 함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향에 걸쳐져 있다. 물론, 인문학의 어떤 결과들은 관념적이거나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한 산물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인문학적 탐구의 방법이 엄격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과학적 방법론과 다르다는 사실이 그들의 연구결과를 자동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대주의적 주관의 산물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일상적 삶의 양식이 비이성적인 편견의 왜곡된 산물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양식 속에는 과학의 합리성과 객관성만으로는 도저히 계측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합당함과 지혜의 종류가 도처에 산재한다. 이 같은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에 관한 질문들을 상대주의나 냉소주의의 먹이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다. 이 같은 합당함이나 지혜를 취득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어려움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실들, 즉 그에 관한 의미들이나 가치들에 대한 간절한 관심과 소중한 질문들을 막연하고 사적인 번덕이나 욕망의 무덤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다.

통찰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오크쇼트가 ‘지속적인 인류의 대담론(On-Going Conversation of Mankind)’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삶의 양식 발전에 공헌한다. 그 어떠한 사회도 그 사회가 창조, 발전, 유지시키는 관례나 제례 혹은 온갖 종류의 대화와 담론 속에서 구성되고 향유되는 의미와 가치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인문학은 이 같은 대담론의 유지와 발전에 지적인 차원에서 공헌한다.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서의 대학은 이 같은 지적인 담론의 전형인데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 신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더 배가된다. 과학적 지식의 이상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곳이 대학입과 동시에 다양한 삶의 양식과 그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과 연관된 지적인 통찰이 지속되어야 하는 곳도 역시 대학사회인 것이다.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담론(interdisciplinarity)의 공간이어야 한다. 과학과 윤리학, 공학과 문학이 대화하고 접속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만남과 대화가 다양한 학문의 통합을 위한 이론 구축이나 과학적 의미의 발전을 위한 백과사전식 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증 과학적 경계와 인문학 영역간의 넘나들고 그리고 인문학 일반과 일반 대중적 상식과의 만남이 그것인데 이 모두는 ‘지속적인 인류의 대담론’에의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학제간의 대화 모색은 철학이나 인문학의 특권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과업에 첫째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이 같은 담론에는 삶의 세계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에 관한 예민한 감수성과 더불어 명료한 분석적 기술 그리고 개념의 정립과 재고의 방향성 구축 등을 위한 창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학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인간관계에 이 같은 대화와 담론의 중요성이 집약된다. 담론의 연속성(역사성)을 기억하는 사제간의 학문적 대화에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뒤따르면서 익히며, ‘낮익음 속의 낯설음’을 함께 경이 하는 진정한 대화의 향연이 펼쳐져야 한다.

만약에 대학이 이 같은 종류의 지적인 담론을 통한 참된 인간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면, 한편으로는 주제별 전문연구소 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기술 전수학원으로 재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보다 넓은 지적인 정신문화 일반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단지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삶의 정신적 측면에 깊게 연루되어있는 일반사회로부터의 관심과 더불어 중요성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학인들이 이 같은 그들의 소명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쾨변론자나 예언가들이 대담론의 전면을 독점하고 ‘합당한 대화’의 덕목이 매도되는 불행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일반사회가 기대하는 소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영역에 투신할 필요는 없다. ‘지속적인 인류의 대담론(Conversation of Mankind)’에의 다양한 공헌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자들로서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삶의 양식들 속에서 명멸하는 의미와 가치 등을 통찰하고 재고하며 비판해보는 등 자신이 하여야 할 일에 고집스럽게 충실함으로써 이 같은 일반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숭고한 고집을 매도하는 세력은 고급과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으나 현대에 이르러 편협한 전문주의와 천박한 상업자본주의라는 이중의 폭압이 그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사회와 문화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으며, 정신적 양식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지배를 통한 끝없는 욕망의 자기 기만적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대학의 인문교육이 더욱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 고 문 헌

- A.Burms and H.De Dijn, *De Rationaliteit en haar Grenzen*, Leuven-Assen, Leuven Univ. Pers-van Gorcum, 1986, p.16.
- Herman De Dijn, "De Universiteit en de Geesteswetenschappen", in *Onze Alma Mater* 51 Leuven (1997), Nr. 1, pp.7-30.
- Hans Blumenberg,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trans. by R.M.Wallace), Cambridge(Mass.), MIT press, 1983; Part III, 'The Trial of Theoretical Curiosity'.
-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a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1983. pp.57-8.
- Michael Oakeshott,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London & New York, Methuen, reprint, 1983. pp.97-147.
- Alan D.Sokal & Jean Bricmon, *Impostures Intellectuelles*. Paris, Jacob, 1997.
-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7.

<Abstract>

Choi Chul-Byung

The current malaise affecting the university in general and the human sciences in particular has a deeper origin than is usually recognized. It has to do with the gap between science and culture, between the scientific way of dealing with things and the ordinary-lifeway of dealing with them. The more university is seen as the bastion of science, the less those sciences which traditionally dealt with human affairs as seen from the ordinary, common sense point of view, are taken seriously. It is particularly the Geisteswissenschaften which are de facto depreciated. The usual reaction is an attempt to ever more professionalism and methodological rigidity also in these sciences. This leads to disastrous consequences both for the Geisteswissenschaften and for the university education as a whole.

The fact that the human sciences do not partake in the strict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the positive sciences,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m irrational or subjective. Otherwise, the same ought to be said about practically everything in human life. Outside th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science, there is certainly room for reasonableness and wisdom. To think otherwise is to surrender what is most important in human life, the questions concerning meaning and value, to subjectivism and cynicism. This reasonableness and wisdom is of course not easy to obtain. But this can be no reason to abandon the most serious things in life, precisely the meanings and values which made it into a human life, to pure whim or force.

Key Words: University, Human Sciences, Geisteswissenschaften, Objectivity of Human Sciences.